

# ‘불법 개발행위 엄단’ 여수시의회·‘나몰라라’ 순천시의회

### 여수시의회, 난개발 조사위원회 구성해 적극 대처 순천시의회, 특위구성 없고 업자 두둔 의혹 ‘눈총’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엄정 척결에 나서는 ‘여수시의회’와 이와반대로 나몰라라 일관하는 ‘순천시의회’의 감시 기능이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여수시의회는 자연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태계 보호지역의 무단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순천시의회는 순천을 상징하는 세계 5대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업자를 두둔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 눈총을 받고 있다.

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대규모 산림이 훼손된 여수 돌산 소미산과 예

슬랜드의 갯바위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는 것.

위원회는 개발행위 실태 파악과 집중 조사후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제시할 방침이다. 나현수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난개발조사위원회를 꾸려 난개발을 집중 조사하겠다”며 “철저한 원상복구와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토지 불법 개발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특위구성은 커녕 소유주를 두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만습지 인근 불법개발행위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걸고 염전, 농지 등 3만㎡에 달하는 토지를 성토한 후 돌담,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했다.

시는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했으나 A씨는 원상복구에 불응한 채 불법개발행위를 지속한 채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 A씨는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벌금 350만원을 받는데 이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연연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

다. 이런데도 순천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A씨를 비호하는 모양새를 보여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시 감사부서에서 수사기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일도 문제 삼았다. B 의원은 “고발 후 탄원서를 낸게 정서적으로 부합하나, 감사실장이 페이스북에 현 상황을 설명하는게 적절하냐”고 묻는 등 업자를 보호하는 듯한 질문을 해 공무원들을 어리둥절케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시가 고발을 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진행은 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중인 형사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보라고 제안한 의원도 있다. C 의원은 업자인 A씨를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설명을 들어보자는 발언을



세계 5대연안습지인 순천만 인근 3만㎡ 부지에서 버젓이 이뤄진 불법 개발행위 현장. 개발업자는 불법매립으로 벌금형을 받는데 이어 지난 10월 농지불법전용과 염전 불법형질변경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59)씨는 “지난달 시청 공무원들이 순천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직무관련 알선정탁이나 특혜 요구가 많아 힘들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원에게 바라는 모습으로 제기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윤리의식 갖춘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은 다른 지자체에서나 통용되는 얘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아들 고 김용균씨 영정 바라보는 김미숙 이사장.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김씨의 묘 앞에 놓인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 ‘흥기폭행·폭언 물의’ 강진·보성체육회장 징계절차 돌입

### 전남체육회 영구제명·자격정지 등 중징계 요구

전남 강진과 보성체육회가 ‘공무원 흥기 폭행과 폭언 물의를 빚은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의 중징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강진·보성체육회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전남체육회에 따르면 강진과

보성체육회가 공무원을 흥기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해당 지역 체육회장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각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법률가,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주께 모여 논의를 한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체육회장의 경우 수사가 완료

돼 구속상태이며 상급단체인 전남체육회가 자격정지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구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강진체육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보성체육회장의 경우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이후 보조금 유용 의혹 등이 새롭게 추가됐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징계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 코로나19 위중증 125명…대전·충남·전북 중환자병상 ‘0’

### 중증환자 치료병상 전체 550개 중 55개병상 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이후 건강이 악화돼 산소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125명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55개 남은 가운데 대전과 충남, 전북 등에는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증가한 125명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의 치료를 받는 환자를 위·중증 환자로 분류한다.

1주 전인 11월29일 76명이었던 위·중증 환자 수는 11월30일부터 최근 1주간 76명→97명→101명→117명→116명→121명→12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주 사이 49명(64.5%) 증가했다.

연령별 위·중증 환자 수는 ▲80세 이상 28명(22.4%) ▲70대 42명(33.6%) ▲60대 34명(27.2%) ▲50

대 16명(12.8%) ▲40대 5명(4.0%)이다. 39세 이하 위·중증 환자는 없다. 60대 이상 고령층 위·중증 환자는 전체의 83.2%인 104명이다.

코로나19로 전날 5명이 숨져 사망자는 총 545명이 됐다. 이날 들어 19명(12월3일-6일 3명→7명→4명→5명)이 사망했다. 확진자(3만 7546명)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1.45%다.

전날 숨진 5명은 모두 80세 이상 고령층이며, 남성 2명, 여성 3명이다.

사망자 545명의 연령대는 ▲80세 이상 277명(50.83%) ▲70대 173명(31.74%) ▲60대 64명(11.74%) ▲50대 24명(4.40%) ▲40대 5명(0.92%) ▲30대 2명(0.37%)이다. 60대 이상 고령층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94.3%인 514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5일 기준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전체 550개 중 10%인 55개가 남아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장비·인력을 갖춰 중수본 지정을 받은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36

개, 다른 질병 중환자실을 포함해 현재 중증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9개가 즉시 가용할 수 있다.

중수본 지정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없는 곳은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충북에는 지정 병상 외에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일반 중증환자 병상이 2개 있지만 대전과 충남, 전북 등 3개 시·도에는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일반 중증환자 치료병상도 없다.

이외에 대구,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등 5곳에도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모두 소진됐다.

가장 병상이 많지만 환자도 가장 많은 서울(전국 격리 치료 중 환자 7873명 중 3184명)은 전담 병상 62개 중 7개, 일반 병상 123개 중 2개 등 9개만이 남아있다. 1744명으로 격리 인원이 두번째로 많은 경기도는 전담 병상 5개와 일반 병상 1개 등 6개, 일반 병상이 없는 인천(330명)에는 전담 병상 5개가 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부산(332명)에는 전담 병상 1개와 일반 병상 3개 등 4개 병상에 환자가 더 입원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